

언론 보도 사항

2016 02월 13일

< 목 차 >

1. 강원소방 이흥교 소방본부장 임용 - 각 언론사
 2. 홍천 서석면 사찰 화재 발생 - 각 언론사
 3. 구급대원 폭행 방지 적발할 액션캠 확대 보급 추진 - 강원일보
 4. 실종된 60대 평창 야산서 숨진채 발견 - 강원일보
 5. 소방서 언론보도 - 뉴시스, 강원일보
-

강원도 종합상황실

도소방본부장에 이흥교씨 임명



신임 도소방본부장에 이흥교(52·사진) 소방준감이 임명됐다. 국민안전처는 오는 15일자로 도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준감급 이상 인사를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흥교 도소방본부장은 삼척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와 강원대 방재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93년 소방간부 7기로 공직에 임용됐다.

도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도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예방훈련계장·소방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행정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일 도소방본부장은 15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16년 02월 13일 토요일
002면 종합

이흥교 도소방본부장 취임

제13대 도소방본부장에 이흥교(52·사진) 전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이 15일자로 취임한다.



신임 이 본부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 대회위해 소방안전 대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척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와 강원대 방재대학원을 졸업했다. 1993년 소방간부 7기로 공직에 임용, 도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강원도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예방훈련계장·소방재난상황실장 등을 역임했다. 최경식 kyungsik@kado.net

강원소방본부장 이흥교씨



【춘천=뉴시스】 박혜미 기자 = 신임 강원도소방본부장에 이흥교(52) 전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이 내정됐다.

12일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강원 삼척 출신으로 1993년도 소방간부 7기로 공직에 임용됐다.

그간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강원도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예방훈련계장 소방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세종연구소에서 교육파견 근무중이며 15일자로 제13대 강원도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게 됐다.

이 내정자는 다양한 현장경험과 함께 인사, 감사, 장비 등 소방 행정업무 경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처리는 철저함을 강조하지만 평소에는 온화하고 차분하며 합리적이고 자상한 성격으로 직원들의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식은 15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소방준감, 제13대 강원소방본부장 취임



(춘천=포커스뉴스) 강원도소방본부는 오는 15일 이흥교(52) 소방준감이 제13대 강원도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다고 12일 밝혔다.

1993년도 소방간부 7기로 임용된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은 한국방송통신대, 강원대 방재대학원을 졸업하고 강원도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강원도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예방훈련계장, 소방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을 역임했다.

특유의 섬세함을 지닌 신임 강원도소방본부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뿐 아니라 인사, 감사, 장비 등 소방 행정업무 전반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흥교 강원도소방본부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소방본부장에 이흥교 소방준감 취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제13대 강원도 소방본부장으로 이흥교(52) 소방준감이 12일 취임했다.

이 신임 본부장은 강원 삼척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강원대학교 방재대학원을 졸업했다.

소방간부 7기로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담당, 동해소방서장, 강원도 소방학교장, 소방방재청 예방훈련계장·소방재난상황실장,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 행정지원팀장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현장경험과 인사, 감사, 장비 등 소방 행정업무 전반에 탁월하다는 평가다.

이 신임 본부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간 화합을 바탕으로 친서민 소방안전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취임식은 15일 강원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천 사찰서 화재

12일 오후 5시30분쯤 홍천군 서석면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사찰 식당 건물인 조

립식 건물(170㎡)과 사찰 본 건물(117㎡) 일부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춘천/이종재 leejj@kado.net

江原日報

2016년 02월 13일 토요일
005면 사회

홍천 사찰 화재 건물 2동 불타

12일 오후 5시30분께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1시간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본동의 절반가량인 118㎡가 불에 타고 170㎡ 면적의 샌드위치 패널 부속 건물이 전소됐다. 정윤희기자

홍천 사찰에 불 건물 2동 태워



오늘 낮 5시 반쯤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의 한 사찰에서 불이나 건물 2동 등을 태우고 1시간 반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불로 식당으로 쓰던 조립식 건물 170여제곱미터가 완전히 불에 탔고 사찰 건물 일부도 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찰에 불 ... 인명피해 없어



오늘(12일) 오후 5시 반쯤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조립식 건물 등 건물 두 동을 태운뒤 한 시간 반 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사찰 식당 건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액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석면 사찰 화재 발생



12일 오후 5시30분께 강원 홍천군 서석면 어론리 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인해 식당으로 사용하던 부속동 170.37㎡ 전소, 본동 1층 117.72㎡가 반소됐으며 1시간30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액을 조사 중이다.

홍천 사찰서 화재 ... 1시간30분만에 진화



(홍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12일 오후 5시30분께 강원 홍천군 서석면의 한 사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식당으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 170㎡와 본동 일부(117㎡)를 태우고 출동한 119소방대원에 의해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사찰에 불 ... 인명피해 없어



오늘(12일) 오후 5시30분쯤 강원도 홍천군에 위치한 사찰 백운정사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법당 건물 1층 절반과 식당 건물 170 제곱미터 전부를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식당에서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홍천 서석면 사찰 화재 발생



오늘 오후 5시 반쯤 강원도 홍천 서석면에 있는 절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조립식 식당 건물 한 채와 법당 1층이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 폭행 잇따라

액션캠 확대·보급 추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소방 당국이 방지 차원에서 액션 캠을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12일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29건에 이른다. 이 중 97%인 28건이 가해자의 음주로 인한 폭행이었다.

액션캠은 12일 현재 도내 일선 소방서에 90개가 보급됐으며 이달 중에 9개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액션 캠을 활용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의 폭행 사건 증거 확보는 물론 폭행 자체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윤희기자

江原日報

2016년 02월 13일 토요일
013면 지역

횡성소방서 액션캠 도입

【횡성】횡성소방서(서장:원미숙)는 구급대원의 폭행 방지 및 증거 수집을 위한 액션캠 7대를 도입해 운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9건이며, 이 중 음주로 인한 폭행은 97%에 달하는 28건을 차지했다. 이에 소방서는 지역 내 구급대원 폭행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고 휴대가 용이한 액션캠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허남윤기자 paulhur@kwnews.co.kr

침 캐러 간다며 실종된 60대 평창 야산서 숨진채 발견

12일 오전 7시13분께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의 한 야산에서 주민 김모(66)씨가 나무에 걸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전 9시께 침을 캐러 간다며 집을 나선 후 밤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부인이 밤 9시40분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원 6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여 김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김씨의 몸에 부상 흔적이 없고 발견된 장소가 가파른 지형이 아니었던 점 등을 토대로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 알기쉬운 피난유도 스티커 개발



【춘천=뉴시스】 박혜미 기자 = 강원 춘천소방서(서장 안중석)가 손바닥 모양 피난유도스티커를 자체 개발해 소방안전교육에 활용하며 주목받고 있다.

12일 춘천소방서는 춘천시 교동 '사랑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대상으로 피난유도스티커를 활용한 화재대응 연기피난체험을 실시했다.

피난유도 스티커는 화재시 패닉상태를 방지하고 안전한 탈출을 유도하기 위해 춘천소방서가 자체 개발한 것으로 공공시설, 주택 등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나 부착해 전 연령층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스티커는 손바닥 모양의 야광으로 제작되어 벽면 바닥으로부터 60cm이하 1m간격으로 부착한다.

야광인 만큼 화재시 짙은 연기와 정전상태로 어두워도 잘 보이고 어린이의 손바닥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흥미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60cm이하로 낮게 부착된 스티커를 자신의 손바닥에 맞추며 대피하게 되면 낮은 자세가 유지되기 때문에 연기흡입을 예방하게 되고 한 방향으로 되어 정확하게 출입문에 도달 할 수 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이번 훈련으로 화재발생시 연기의 위험성에 대하여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중석 서장은 "화재발생시 정확한 대피방법을 숙지시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16년 02월 13일 토요일
014면 지역



고성소방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고성소방서(서장:남궁규)는 12일 간성읍 어천리 55연대 1대대를 방문해 100여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을 열어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인재육성 기금 전달 철원군 갈말읍 지경의용소방대원들은 12일 군수실을 방문해 인재육성 기금 50만원을 이현종 군수에게 전달했다.

철원=이정국기자

강원도민일보

2016/02/13 토
007면 지역



◇남궁규 고
성소방서장은 15일 오후
1시30분 간
성시가지 및

간성전통시장에서 소방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